



#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 내용의 분석과 평가

황 용 식\*

## I. 머리말

중국은 2011년 7월 1일<sup>1)</sup>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행사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주요간부, 주요 정부인사, 중요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는데<sup>2)</sup> 동 기념식에서 후진타오(胡锦涛) 공산당 총서기가 72분 동안의 기념사를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창당 이후 지금까지의 행적을 회고하고 중국공산당의 기본이념, 과제 등을 언급한 후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될 때의 중국의 모습을 예견하였다.

본고는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후진타오의 연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이 지난 90년간의 업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래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 중국공산당의 주장내용 중 구체성을 결여한 부분이나 이론과 현실상의 괴리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 II.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가 가지는 의의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는 최근에 있었던 1991년 중국공산당 창당 70주년 기념행사, 2001년 80주년 기념행사, 2006년 85주년 기념행사와 마찬가지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중국공산당 창당을 기념하면서 당의 총서기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의 발전 상황을 재평가하고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임무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창당 70주년과 80주년 기

\* 중국문화대학 정치학 명예박사, 전 주 튀니지 대사, 주 타이베이 대표

본 내용은 필자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념행사에서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었던 장쩌민(江泽民)이 연설을 하였으며 2006년에는 현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연설을 행하였다. 이번 90주년 기념행사에는 현재의 후진타오 총서기가 자신의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정된 2012년 10월 개최될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의 현재까지의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중국공산당의 당면과제와 앞으로의 임무와 나아갈 길을 밝힘으로써 차기 지도자에게 인계할 업무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 금번 행사에서는 차기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추대될 것이 예상되는 시진핑(习近平)이 행사를 사회하는 역할을 하였다.

### Ⅲ.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을 통한 중국공산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체 평가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주석은 먼저 중국공산당의 탄생이 중국 역사상 필연적 산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열강에 의하여 반식민 상태가 되고 중국인들이 굶주림과 노예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쑨원(孫中山)이 신해혁명을 일으켜 중국을 수천 년 간 계속되었던 전제 군주국가제도를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반식민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였으며 국가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모두 성공하지 못하던 차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의 노동자 운동이 국가를 구출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을 창설하게 되었으므로 중국공산당은 중국 역사상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이어서 중국공산당이 지난 90년간 이룩한 3가지 업적으로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개혁·개방 혁명을 들면서 중국공산당이 인민과 더불어 신민주주의를 완성한 후, 창조적으로 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환시켰으며 제11기 3차 중국공산당 대회(1978년 12월 거행)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경험, 국제경험, 이론과 실천의 용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완성하고 전방위 대외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이 3가지 업적은 중국 5천년 문명역사를 찬란하게 바꾸고 중화민족을 위대하고 전례 없이 밝은 장래의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지난 90년 동안 중국사회에서 발생한 변화와 중국인민의 운명에 가하여진 변화의 폭과 깊이, 정치영향과 사회적 의의는 인류역사상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고 하였다.

### Ⅳ.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에 나타난 중국공산당의 기본 이념과 통치원리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업적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 완강하게 투쟁을 지속하여 온 결과라고 평가하고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은 제1대 지도자로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정치의 근본과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덩샤

오핑(鄧小平)은 제2대 지도자로서 개혁과 개방을 단행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였고 장쩌민(江澤民)은 제3세대 지도자로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하고 시대 조류에 맞추어 중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21세기에 적응하여 발전하는 데 성공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제16기 중국공산당대회(2002년 11월, 동 대회에서 후진타오 자신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을 담임하게 됨) 이래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의 이론과 “3개 대표”를 중요 지도이념으로 하고 발전을 과학적 관점으로 실천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사회 화해-社會和諧)과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건설을 계속하여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3개대표론”은 2000년 2월 장쩌민이 행한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이 전진 사회적 생산역량과 가장 발전된 문화와 전체인민의 기본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서 동 이론은 2002년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party statute)에 채택되었다<sup>3)</sup>.

“사회화해(社會和諧)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건설” 주장은 이미 2002년 3월 제16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주창된 말로써 소강사회는 당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장쩌민이 연설을 통하여 2000년 기준 중국인민의 일인당 국민 소득을 2020년까지 4배를 증가시켜 중국인민들이 의식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데서 유래한 것<sup>4)</sup>이며 화해(和諧)라는 말은 후

진타오가 2002년 3월 당 총서기직을 담임하게 되고 2003년 3월 국가주석 직까지 맡게 되는 동안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사회주의 화해주의를 건설할 것을 여러 강연에서 언급한 데서 유래하며 후진타오 자신은 화해사회의 건설이 민주법치, 공평정의, 성신우애(誠信友愛), 충만한 활력(充滿活力), 안정과 질서(安定有序), 인간과 자연의 상호조화(人與自然和諧相處)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sup>5)</sup>

중국을 연구하는 다수 학자들은 장쩌민, 후진타오 총서기들이 정치철학으로 내세운 소강(小康)과 화해(和諧)라는 말 자체가 중국의 전통적 사상인 유가사상(儒家思想)에서 유래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중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유가사상을 원용하는 것은 중국이 중국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위하여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소강(小康)이란 말은 후한(後漢)시대에 저술되었으며 5경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예운(禮運)편에 언급된 “소강(小康)”과 “대동(大同)”이란 말 중에서 원용한 것으로 청(淸)의 강유위(康有爲)는 대동서(大同書)라는 책을 통하여 인류가 이룩하는 대동의 시대에는 인류평등과 세계정부의 이상이 실현되는 시대라고 하고 소강사회는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전 단계로서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변영(moderate prosperity)을 이룩한 사회라고 규정하였는데<sup>6)</sup>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소강사회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해라는 말에 대하여도 중국의 남방주말(南方周末)이란 주간지의 2006

년 10월12일자 사설은 동 용어가 논어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추구하나 무턱대고 동조하지 않는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설한 바 있으며 다수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sup>7)</sup>

후 총서기는 이 연설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은 중국공산당 영도 하에 국가의 상황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4개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고 사회생산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완전하게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선진문화,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건설하고 부강한 민주문명과 화해적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 체계는 지도하는 당과 인민이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는 정확한 이론이라고 하고 이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제상황에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된 두 가지 이론 체계중의 하나로써 다른 이론체계인 모택동 사상 이론체계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 체계는 덩샤오핑 이론을 포함하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등 중요전략사상에 내재하는 과학적 이론체계로써 중국의 10수억 인구가 발전시키고 있는 대국이 어떠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어떠한 당이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어떠한 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는 오늘날 중국이 발전 진보시키고 있는 근본 제도를

보장하며 중국식사회주의의 특징과 장점을 나타내고 중국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를 스스로 완벽하게 발전시키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분야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결합하는 완벽한 결합체를 형성하여 상호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식 사회주의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하나의 근본제도로 하여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여러 당의 협력과 협상제도, 소수민족 자치제도와 하부 행정단위의 자치제도 등 행정조직의 기본제도, 중국식 사회주의의 법률체계, 공유제를 기본으로 삼고 여러 가지의 경제공동발전을 위한 경제제도, 기타 근본정치제도에 기초한 기본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기본경제제도 기초위에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등 각 분야의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의 실정과 시대의 조류에 순응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활력을 보존하는데 유익하며 일반대중의 사회 각 방면에서의 적극성, 창조성을 유발하고 사회생산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며 전체인민의 공동의 부를 실현하고 힘을 모아 큰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각종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하는데 유효하며 민족단결, 사회 안정, 국가 통일을 유지, 보호하는데 유리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의 기본 원칙이라 함은 1979년 1월18일부터 4월3일까지 계속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회의 중 3월 30일 덩샤오핑이 한 연설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프로레타리아)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 것을 말한다.<sup>8)</sup>

그러나 후 총서기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제상황에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된 두 가지 이론 체계중의 하나이고 모택동 사상이 다른 이론체계라고 함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와 모택동 사상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중국식사회주의를 형성하는 기본원칙으로서 등소평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론을 언급하여 중국식사회주의의 개념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 V.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에 나타난 중국공산당의 임무와 진로

후 총서기가 중국공산당의 임무와 진로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요지와 같다.

### 1. 중국의 발전과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후 총서기는 중국이 지난 90년 동안 한 일의 중심점은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를 보존하고 사상의 해방(解放思想: 원래 마르크스주의의 일내용으로서 과거의 습관이나 주관적 편견 등에서 탈피하는 것을 뜻함), 실사구시(实事求是), 시대의 조류에 맞춘 발전,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접근, 발전적 마르크스주의 지도하의 새로운 실천, 진리를 견지하고 과오를 수정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한데 있다고

하였다.<sup>9)</sup>

### 2. 당의 임무와 당의 이념적 기초

그는 중국공산당이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야 하며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이룩한 규율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솔선하여 운용하고 당이 이룩한 새로운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당이 이룩한 과학화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원천은 실천에 있고 발전은 실천에 따르는 것이며 검증하는 기준도 실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요한 점은 실천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실천에 있어서 과학적인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0)</sup>

### 3. 새로운 인재발굴과 당 간부 선임과 활용방안 기준제시

당은 널리 인재를 발굴하여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여야 하며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를 등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고 각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모을 것과 당이 인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당의 특수이익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서 모든 충성은 인민에게 하고 인민에 뿌리를 두며 인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넓은 무대를 제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 4. 당의 부패척결의 중요성

그는 중국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정치를 하여 왔기 때문에 부패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전 과정에서 부패를 막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2)</sup>

#### 5. 당 조직의 제도화 및 당내의 민주적 절차 보급필요성

그는 각급 공산당 간부들이 민주 집중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 당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이 제도를 정비하여 당장(党章)을 근본으로 하고 민주 집중제를 핵심으로 하여 당의 지도체제, 당의 지도방식과 권력행사 방식을 개혁하고 개선하며 당 대표대회와 당내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당내의 민주적 정책결정 시스템을 개선하며 당내의 단결과 통일 보장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3)</sup>

이 항목에서 “민주 집중제”란 1927년 6월 제3차 수정장정(修正章程) 결의안에서 제기되어 1928년 당정에 채택된 것으로 중국공산당 체제내의 민주적 절차를 채택할 것을 의미한다.<sup>14)</sup> 민주 집중제는 1962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확대 중앙 공작회의(扩大中央工作会议)에서 마오쩌둥(毛泽东)의 연설을 통하여 다시 강조된 점과<sup>15)</sup> 개혁·개방 이후 1980년 8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

의에서 덩샤오핑이 중국공산당 내의 민주적 절차의 채택이 부패를 방지하고 원만한 개발과 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연설한 내용(庚申改革)<sup>16)</sup> 등을 기초로 1982년 11월 제16기 당 대회에서 채택한 중국공산당 장정(章程) 제10조에서 민주집중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당원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여야 한다. 당의 지도급 인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당의 최고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그곳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당의 상급조직은 하급 조직당원과 민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당의 각급위원회는 집단 지도체제의 실행과 개인에게 부과된 책임을 실행하는 종합적 제도이다. 당은 어떠한 형식의 개인숭배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6가지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동 내용이 보다 구체성을 가지는 법적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 6. 당이 나아갈 방향

그는 중국공산당이 과거에 해 온 것처럼 사상의 해방,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개혁을 수행하여나가는 것만이 중화민국을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7)</sup>

#### 7. 경제와 과학 발전의 중요성

그는 중국공산당이 앞으로도 경제건설

과 과학발전을 가장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중국이 아직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후 과학 기술의 진보와 창조적 변화, 환경적인 사회를 이룩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촉진, 사회의 조화와 안정의 촉진, 꾸준한 생산의 발전,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8)</sup>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 당은 중국의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2000년 2월 장쩌민이 주장한 “중국공산당의 3개 대표설”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

그는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양면을 모두 경험하였다고 하고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체제의 개혁으로 지도급 간부직의 종신제를 폐지하여 국가 권력기관과 지도자들이 절차에 따라 교체되도록 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인민들의 정치 참여범위를 확대시키고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다수당이 협조하여 심도 있는 정치협상을 하고 민주적

감시제도와 정치 토의 과정에의 참여와 최대한 확대된 애국통일전선을 확고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공산당원들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과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및 법률과 해당 규약에 따라서 독립하여 책임을 지는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과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과 법에 따른 민주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9)</sup>

## 9. 사회주의 선진문화 건설

그는 오늘날 문화가 종합국력으로서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중국이 문화개혁 발전을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천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애국주의를 핵심적 민족정신으로 삼아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설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기초로 도덕의식을 배양하고 문화체제를 개혁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20)</sup>

## 10. 인민의 복지후생지향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그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사회주의 화해사회(和谐社会)건설과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会)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목표임을 천명하고 민생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 교육 발전,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거보장 등 각 분야의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며 기본 공공복무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수입 분배를 조절하는 역량을 증대시키며 부를 공동으로 가지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전체 인민들이 교육, 노동, 노년부양, 주거 등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당의 영도력, 정부의 책임, 사회의 협동과 공중이 참여하는 중국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관리 과학화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21)</sup>

## 11. 국방, 외교, 국제문제

그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통합하며 국방과 군대의 과학화와 군민융합식의 발전 방식을 모색할 것과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통솔이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외교문제에 관하여 홍콩, 마카오 통치에 관하여 일국양제원칙을 확인하고 대만과는 양안 교류합작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양안 각 계층의 왕래를 확대하되 ‘대만 독립’의 분열활동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의 외교정책 근간이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에 기

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상생적 개방전략 평화공존 5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22)</sup>

위에서 말한 ‘평화공존 5개항원칙’이라 하면,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후 국제적 긴장이 완화되자 중국이 인도와 티베트문제와 관련하여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쉰우언라이(周恩來)수상이 동년 12월 중국정부에 처음으로 제출한 중국정부의 외교정책상의 원칙으로서 “상호 영토주권 존중, 상호 불침략,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말한다.<sup>23)</sup>

## 12. 중국 청년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그는 중국공산당의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컸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당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들도 조국을 사랑하고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4)</sup>

## 13. 중국공산당의 과거, 현재의 위상과 미래의 위상 전망

그는 중국공산당 성립 100년이 되는 때에 높은 수준의 소강사회를 완전히 건설하고 새로운 중국성립 100년이 되는 해에 부강한 민주문명, 조화로운 사회주의 문화국가를 완전히 건설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목표라고 천명하였다.<sup>25)</sup>

## Ⅶ.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 자체와 동 기념행사에서의 후진타오 총서기의 연설은 중국공산당이 지난 90년 동안 발전하고 변화하여온 내용과 중국공산당의 이론적 기반,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행사에 참여한 자 중에 기업의 대표가 포함된 것은 중국공산당의 성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은 2002년 11월 개최한 16기 당대회에서 당장을 개정하여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수용하고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소핑 이론, 그리고 ‘3개 대표’라는 중요한 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삼는다”고 명기하여 과거 중국공산당이 무산계급정당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또한 동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라고 선언하여 전 인민의 정당이라는 성격을 부각시키고 당원자격에 관하여 과거 당장에서 ‘혁명분자’라고 하였던 것을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라고 수정하여 민간기업인들에게 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데에 기인한다.

후 총서기의 연설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이론적 기반, 임무와 앞으로의 진로 등에 관하여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자신의 통치 철학을 포함하였으나 매우 수사적이며 과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논리적 완벽성을 결여하고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를 상술하면 첫째, 후 총서기는 연설에서 지난 90년간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찬란한 업적을 열거하고 중국공산당이 행한 잘못은 “과거 중국공산당은 한때 과오를 범하고 심지어 심한 좌절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근본 원인은 그 당시의 지도사상이 중국의 실제상황을 이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중국공산당의 행적 중 과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업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게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과거 행적 중 특히 1956년 소련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헝가리에서의 민중 봉기에 자극을 받아 마오쩌둥이 지식인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명방운동(鳴放運動)을 일으키고 지식인들이 오히려 그의 정책에 반대하자 반우파 운동(反右派運動)을 전개하였으며 1958년부터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라는 무리한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인민공사(人民公司)를 만들어 농촌지역에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1958년부터 1962년 동안 국민총생산의 35%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근으로 적어도 3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sup>26)</sup>과 1966년부터 1976년까지 계속된 공산당 주도하의 문화대혁명으로 많은 지식인과 개혁개방론자들이 숙정당하고 중국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한 사실은 중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고 중국인민에게 커다란 시련을 준 사실<sup>27)</sup>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둘째, 후 총서기는 연설을 통하여 중

국식 사회주의의 이론체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사상, 과학적 발전관 등을 포함하는 과학적 이론체계이며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은 중국공산당 영도 하에 국가의 상황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4개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고 사회생산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완전하게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선진문화,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건설하고 부강한 민주문명과 화해적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론, 노선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발전방향과 차이가 있다.

2000년 2월 장쩌민이 행한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이 전진 사회적 생산역량과 가장 발전된 문화와 전체인민의 기본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3개대표론”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1979년 3월 덩샤오핑이 한 연설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프로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 4개 기본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은 4개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산계급 독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2002년 11월 개최 당 대회에서 채택한 당장(党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기타 혁명분자’라는 표현을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로 수정함으로 무산계급의 독재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 당대회시 사영기업의 장이 공산당원이 된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

지하였다고 한다.<sup>28)</sup>

중국식 사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등을 포함하는 과학적 이론체계라고는 하나 이러한 이론은 모두 공산당의 지도급 인사가 자기의 사상을 반영한 이론으로써 이들 이론을 주창한 자의 위상이 변함에 따라서 그들 이론의 영향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련의 몰락과 함께 영향력이 쇠퇴하였고 마오쩌둥 사상은 1945년 중국공산당 제7기 대회에서 당장에 삽입되었으나, 그 후 1956년 제8기 대회 때 당장에서 삭제되었다가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당장뿐만 아니라 헌법 서문에까지 삽입되었으나 개혁·개방 이후에 그 영향력이 감소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3개대표사상은 장쩌민 총서기가 주창한 이론이며 과학적 발전관은 후진타오 총서기가 제창한 이론인데 이러한 이론 또한 앞으로 이들의 영향력의 증감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론적 배경은 마르크스-레닌사상, 마오쩌둥 사상, 3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 사상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후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식사회주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중국을 소강사회, 화해사회로 발전시키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선진문화국가로 이룩하는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하고 “권력은 인민들로부터 부여된 것이고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만 행사될 수 있으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한편

공산당 간부들은 지속적으로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여야 하며” 정치적 신념이 강하고 배우는 재능이 있고 실적이 있는 자가 간부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중들이 인정하고, 덕으로서 수양이 되고, 덕으로 민중이 따르게 하고, 덕이 재능을 이끌어 덕이 재능을 더욱 운택하게 하는 덕과 재능이 겸비된 자들”이 간부를 맡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후 총서기는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나 중국인민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한 적이 없으며 중국공산당이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나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다른 정치 집단에게 이양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공산당이 인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 인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공산당 스스로 한다.

예를 들면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여 수십만의 학생들이 공산당의 지도부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쉼기 대회를 가졌으나 공산당 권력 핵심부인 덩샤오핑(鄧小平), 천원(陳雲), 양상쿤(楊尚昆) 등은 동 사태를 ‘폭란(暴亂)’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 강제진압하였으며 당시 당 총서기이었던 짜오쯔양(趙紫陽)을 학생들의 요구에 동정적이었다고 하여 실각시키고 대신 장쩌민(江澤民)을 당 총서기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결국 학생들의 봉기가 인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공산당 실권자들이 결정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원은 현재 약 8천만 명으로 중국인민의 약 6%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제도는 약 6%의 인구가 94%의 인구를 지도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권력

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가능한 것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전통 사상의 하나인 유가사상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맹자(孟子)의 만장장구(萬章章句)상편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은 하늘(天)이 준 것이라 하고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이양할 때 백성들이 행동과 사실로 이를 수용하면 하늘 또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9)</sup>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거나<sup>30)</sup> 현 지도자에 의하여 후계로 추천되고 당의 추인을 받아 지도자가 되는데<sup>31)</sup> 인민들이 이렇게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중국인들의 전통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후 총서기가 공산당 간부들의 자질로서 덕을 강조한 것은 역시 맹자의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상편에서 덕행(德行)으로써 인(仁)을 행하는 것을 왕자의 길(王道)이라 하고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패자의 길(霸道)이라 하면서 덕으로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성심으로 굴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sup>32)</sup> 후 총서기가 공산당 간부에게 덕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유가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목표로 내세운 소강사회나 화해사회의 개념자체가 유가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의 기초가 중국전통의 유가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나 중국공산당은 문화혁명 당시 유가사상을 배척한 바 있으

며 또한 현재의 중국일반 인민 다수가 이러한 유가사상을 신봉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만약 중국인민 다수가 자신의 지도자 선출 방식에 대한 현재의 방식을 부정하고 무엇이 인민의 이익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직접적으로 하기를 요구하는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중국공산당의 위상은 중국 내부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후 총서기는 연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이 완전한 소강사회를 이룩하고 새로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해석됨)탄생 100주년(2049년으로 해석됨)시까지 중국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선진문화를 완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에서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후 총서기가 특히 중국이 중국 청년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고 중국청년들을 격려한 것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중국공산주의 청년단(共靑團)에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 VII. 맺는말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행사는 중국 지도자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10월에 있을 제18기 공산당대회 이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창당 기념행사로서 동 행사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연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나온

역정을 설명하고 차기 공산당 지도자에게 당의 임무와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제시한 뒤 중국공산당 주도로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후 총서기는 동 연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이 앞으로도 당연히 중국의 정치를 담당할 핵심체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고 중국내에서 완전한 소강사회를 이룩한 후 새로운 중국 탄생 100주년이 될 때까지 중국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선진 문화국가로서 세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후 총서기는 연설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 자신의 과학적 진보관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02년 당장 개정을 통하여 사영기업인을 공산당원으로 영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식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이론을 주창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이론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이론이 중국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데 완벽하지도 않다. 중국공산당의 당원은 현재 약 8천만 명이며 이는 중국 인민전체의 약 6%를 점한다. 이러한 6%의 집단이 94%의 인구를 통치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인민의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층 간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기존의 지도자가 후계자를 추

천하고 이를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력 창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가사상에서 권력은 하늘(天)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구제도하(ancien régime)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국가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며 인민들은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에 의하여 시민적 자유(la liberté civile)를 가지고 국가권력은 시민과의 사회계약(contrat sociale)에 의하여 창출된다는 사상<sup>33)</sup>에 의하여 부정되고 이들의 새로운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중국이 중국전통사상인 유가사상에서 유래하는 권력천수설(權力天授說)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면서 화해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내부적으로 중국인들이 더 많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요구할 경우 그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영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와 대외적으로 서구사회와 서로 상이한 가치관에서 오는 마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국 공산당의 장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sup>34)</sup> **외교**

## 註

1)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실제로 개최된 일자에 관하여는 1921년 7월 27일이라는 설(쿠어화룬〈郭華倫〉 저 *中共史論* 第1冊 pp. 9, 22-23, 322)과 1921년 7월 23일이라는 설(차이꾸어위〈蔡國裕〉 저 *中共黨史* 第1冊 p. 58)의 양설이 있다. (장위파〈張玉法〉 저 *中國現代史*, 東華書局(台北 소재) 2004년 발간 增訂版 p. 320)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일보 2011년 6월 29일자 12면은 중국공산당 대표 13명이 상하이에서 모여 창당을 결의하는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연 날에 대하여 1938년 마오쩌둥이 7월에 회의를 연 사실만을 어렵듯이 기억해 상징적으로 7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하기로 했으나 78년 개혁·개방 이후 소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등 정밀조사 끝에 창당일이 7월 23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 2011년 7월 4일자 29면 이 덕일 *古今通義*에서 중공중앙당사연구실은 *중국공산당역사* (1991)에서 당 창건일을 1921년

7월 23일로 못 박았다고 하고 창건기념일이 7월 1일이 된 것은 “1941년 6월 30일 중공중앙이 〈중국공산당 탄신 20주년, 항전 4주년 기념지시〉란 문건에서 7월 1일을 창건기념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란다”라고 하고 있다.

2) 2011. 7. 2 人民日報 網

3)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palgrave macmillan, second edition, 2004 pp. 84-85

4) *Ibid*, p. 86

5) 龍華, *胡溫治國揭秘* 香港新華彩印出版社(2005), p. 2

6) Daniel A. Bell *China's New Confucianism*, Princeton and Oxford, 2008, pp. 20-28

7) *Ibid*, p. 14

8) 張豈之, 楊先才 공편, *中華人民共和國*, 五南圖書出版公司(臺北, 2002) pp. 350-351

9)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중국이 지난 90년 동안 한 일의 중심점은 중국공산당에 있었음. 중국의 발전은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를 보존하고 사상의 해방(解放思想: 원래 마르크스주의의 일내용으로서 과거의 습관이나 주관적 편견 등에서 탈피하는 것을 뜻함-필자 주), 실사구시(實事求是), 시대의 조류에 맞춘 발전,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접근, 발전적 마르크스주의 지도하의 새로운 실천, 진리를 견지하고 과오를 수정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한데 있음. 당이 앞장서 나아가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인민으로부터 지혜와 역량을 받아들이고, 당과 인민의 관계를 밀착시키면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고 인재를 널리 발굴하며 업무역량을 평가하여 능력을 배양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사쇄신을 단행하여 당의 활력을 진작시킨데 있음. 또한 당이 당을 관리하도록 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다스리고 당내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당의 체질을 건강하게 보존한데 있음.”

10)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필자 번역)

“세계정세, 국가정세, 당의 사정이 심각한 변혁기에 있다는 것과 당의 지도역량의 수준과 정치역량의 수준을 높이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고 위험대처 능력을 높이며 당의 정치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성을 배양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유래 없는 새로운 상황의 발전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정치시련, 개혁개방의 시련, 외부환경의 시련이 장기적이며 복잡하고 준엄하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함. 정신이 태만하여질 위험, 능력이 부족할 위험, 군중으로부터 이탈할 위험, 소극적이고 부패할 위험이 더욱 예리하게 당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으니 당이 당을 다스려야하는데 당을 엄격히 다스려할 임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긴박하게 되었음.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과학이론에 충실한 당을 건설하고 개혁과 창조의 정신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는 당을 건설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론이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야 하며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이룩한 규율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숭선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당이 이룩한 새로운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

진하고 당이 이룩한 과학화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 당이 이룩한 과학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상의 해방, 실사구시, 시대의 조류에 맞춘 발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 대중화이고 당 전체의 사상과 정치수준을 높이는 것임.

실천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인식하고 이론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없음. 당과 인민의 실천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에 맞추어 실천을 위한 이론도 부단히 전진함. 중국식 사회주의는 당과 인민이 창조적인 실천과정에서 확장 발전된 것이며 앞으로도 심화되고 개혁될 것이며 확대되고 개방되면서 끊임없이 완성되어 나갈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도 새롭고 넓은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임.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실천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실천에 있어서 과학적인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음. 우리들은 세계의 발전대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 국내정세의 기본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야하며 우리들의 발전단계의 특징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당과 인민이 개발해 낸 새로운 경험을 적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긴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전반적인 이론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이론은 과학적 이론으로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함.

새로운 이론이 한 단계 진전되면 그 이론으로 무장되는 것도 한 단계 진전된다는 것이 우리 당 스스로 이룩한 중요한 경험임. 우리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배워서 이룩한 정당인만큼 인류사회가 이루어 놓은 모든 과학적 신사고와 신지식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함. 당원 전체와 간부들은 학습을 통하여 일종의 지적 욕구를 추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확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론체계를 학습하고 확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관과 방법론 확고하게 수립하고 참되게 덕을 쌓고 지식을 증가시키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배워야함. 전 당 동지들, 특히

당의 지도급 간부들은 모두 끊임없이 사상, 정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이상과 신념을 확고하게 하며 당과 인민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스스로의 의지와 굳은 결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함.”

11)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당을 과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널리 인재를 발굴하여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여야 하며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를 등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고 각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당과 국가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 지난 90년간 당이 발전하여 온 것을 돌이켜 보면 정치 노선이 결정된 후 그 성공여부는 당의 간부들에게 달려있었음. 널리 인재를 발굴하여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성격과 기본 원칙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우리 당은 인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당의 특수이익이 있을 수 없음. 우리 당은 이러한 숭고한 원칙을 확고히 지켜서 모든 충성은 인민에게 하고 인민에 뿌리를 두며 인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넓은 무대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길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으나,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할 수 있느냐는 모두 대량의 우수한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방면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우리들은 더 넓은 시야, 더 높은 비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때에 맞추어 간부로 진출하여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 두어야 함.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간부들이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여야 하며 정치적 신념이 강하고 배우는 재능이 있고 실적이 있는 자가 간부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중들이 인정하고, 덕으로써 수양이 되고, 덕으로써 민중이 따르게 하고, 덕이 재능을 이끌어 덕이 재능을 더욱 운택하게 하는 덕과 재능이 겸비된 자들이 간부를 맡도록 하여야 함. 우리들은 계속하여 업무실적에 따라 간부들을 임용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를 성공

시킬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를 노리는 자가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여 모든 우수한 간부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역량을 헌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수의 젊은 간부들을 육성하여 이들에게 당과 인민을 위한 업무를 이어 받도록 하는 것은 햇불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과 같은 근본계획임. 젊은 간부들은 중임을 이어받아 반드시 정확한 세계관, 권력관, 업무관을 가지고 당과 업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인민대중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개발에 힘써야 함. 많은 젊은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지역, 복잡한 환경, 직책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업무, 자신을 단련시키고 재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업무를 맡아야 함.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단련하고 중대한 고비를 이겨내는 경험을 터득함으로써 우수함을 실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젊은 간부들이 대거 배출되어야만 앞으로 당과 인민의 업무에 희망이 있게 됨.”

12)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당이 이룩한 과학화의 수준을 높이려면 지엽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함께 다루어야 하며 종합적인 통치이론으로 정별적인 것과 예방적인 것을 함께 처리하여 예방적 조치를 중요시하되 더욱 당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의 선진성과 순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함.

지난 90년간 당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결연하게 부패를 척결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인심의 향배와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은 항상 이러한 점을 중대한 정치임무로 삼아야 함. 우리당은 장기적으로 정치를 하여왔기 때문에 부패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전 과정에서 부패를 막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함. 우리당의 깃발은 선명하여 일관되게 부패를 방지하여 왔으며 부패를 반대하고 청렴한 것이 새로운 분명한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였음. 부패와 싸워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그 임무는 여전히 막중한. 부패가

효과적으로 치유되지 못하면 당이 인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될 것임. 당은 이점에 관하여 크게 경종을 울려서 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며 방대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중대한 문제로 부각 되었으므로 더욱 확고한 신념과 결연한 태도와 더욱 강력한 조치로 징벌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추구할 필요가 생겼음.”

13)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각급 공산당 간부들은 우리들의 수중에 있는 권력이 인민들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함.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인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스스로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하며 결코 권력을 개인이나 소수의 사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음. 각급 간부들은 자중하고 자성하며 스스로 노력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고, 모범이 되어야하고 본분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공복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산당원으로서의 기본 특성을 영구히 지켜야함.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 당이 이룩하는 과학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권리를 관리하고 업무를 관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하여야 하고 민주 집중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 당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이룩하여야 함. 지난 90년간 당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수천만 명의 당원을 가지는 큰 당이 잘 건설되고 잘 운영된 것은 제도가 기본이 되는 성격, 전반적인 성격,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 장기적으로 타당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제도의 건설은 사상의 마련하고, 조직의 건설이며, 업무양식의 건설이며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권장하는 요체이므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것을 대담하게 수용하고 내용이 협조적이고 절차가 엄격하며 관련 사항이 완비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체계의 건설임. 당의 제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당장(党章)을 근본으로 하고 민주 집중제를 핵심으로 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유지하되 개선하면서 당의 지도방식과 권력행사 방식을 개혁하고 개선하며 당

대표대회와 당내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당내의 민주적 정책결정 시스템을 개선하며 당내의 단결과 통일 보장하고 당내의 창조적인 활력을 증가시키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반하는 개인의 독단전횡과 당이 약해지고 분산되는 현상을 막아야함.

당 전체의 동지들은 모두 법률 앞에 평등이며 제도상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제도상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명백히 하여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스스로 제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당의 모든 동지들은 당을 걱정하는 마음과 정성껏 당을 부흥한다는 책임감으로 분발하여 이룩한다는 정신으로 당의 건설을 추진하여 우리 당이 반드시 역사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조류를 용감히 받아들이면서 사회진보를 이끌어 나가야함.”

14) 施哲雄 主編, 《發現當代中國》, 楊智文化(臺北, 2003) p. 75

15) 上揭, 《中華人民共和國》, p. 200

16) Andrew J. Nathan, *Chinese Democracy*, Alfred A. Knopf, Inc., (New York, 1985) pp. 224-225  
施哲雄 主編(2003), p. 101

17)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중국공산당은 탄생하는 날로부터 중국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수행하였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당의 기본노선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데에 동요가 있어서는 안됨. 지속적인 사상의 해방과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이 전면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당 동지들은 과거 30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온 것이 개혁·개방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래의 발전도 반드시 개혁·개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함. 새 시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개혁, 개방인 바, 개혁·개방은 당이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 인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위대한 혁명이며 오늘날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유지하고 발전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 반드시 결

어야할 길임.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음. 현재 세계경제, 중국내, 공산당 내에서 모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들의 발전에서 불균형, 비협조, 지속 불가능의 문제가 발생하고 과학발전체계에 제도적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덮어둘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개혁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음. 우리들은 제13기 3차 당 중앙위 전체회의 이래 채택한 노선을 확고히 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고비마다 창조적인 새로운 정신으로 개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개혁·개방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함.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방향을 확고히 하며 개혁정책의 과학성을 높이고 개혁조치를 협조적으로 시행하며 심도 있는 개혁·개방의 돌파구를 찾아내며 심도 있는 개혁·개방이 추구하여야 할 점을 명확히 하고 기회를 잃지 않고 중요한 분야와 중요한 고비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를 개혁하여 새롭게 하고 사회생산력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스스로 발전 향상시키며 과학발전의 사상, 관념을 방해하거나, 체제와 제도의 폐단을 제거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사업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여야 함.”

18)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지속적으로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어야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또한 과학발전의 길을 떠나서도 안 됨. 경제건설을 중요 임무로 하는 것은 국가를 일으키는 요체이며 우리 당과 우리국가가 활기를 가지고 발전하며 오랫동안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요건임. 경제가 좋아지고 빠르게 발전하여야만 전국 각 민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강대한 물질적 기초를 튼튼하게 쌓을 수 있게 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강대한 물질적 기초를 튼튼하게 쌓을 수 있게 됨. 개혁·개방 30여 년이 되는 동안 우리들은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었고 사회생산력이 과거에 유래 없이 빠르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여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종합국력이 되었으며 인민생활수준과 국제지위를 대폭 상승시키는 근본원인이 되었음. 앞으로도 우리들은 이러한 분명한 이치를 가

지는 전략적 사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경제건설의 핵심을 확고하게 이행하는데 조금도 동요됨이 없어야함. 생산력은 인류사회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우리 당은 중국의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음. 당의 모든 노력은 근본적으로 사회생산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끊임없이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었음. 우리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또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에 변화가 오기 어려운 것은 인민들이 날이 갈수록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과 사회주요 모순에 변화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발전만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들이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고 미래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정치능력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며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중대한 시험임. 우리들은 반드시 정신을 몰두하여 건설을 계속하여야 하며 열성적으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굳게 다지고 발전시켜야함.

또한 오늘날 중국에서 발전의 지속이 당연하고도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과학의 발전임. 우리들은 과학발전을 주된 과제로 삼고 경제발전 방식을 빠르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전면적인 협조를 통한 더욱 빠른 발전을 추구하며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개혁·개방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함.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시키며 더욱 빨리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하며 더욱 빨리 과학, 기술의 진보와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더욱 빨리 자원 절약형과 친 환경적인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촉진,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빠른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의 촉진, 꾸준한 생산의 발전, 생활의 풍요로움,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새롭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

고 꾸준히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단단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함.

19)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앞으로 우리들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발전을 견고하게 하여야 함. 인민민주주의는 중국공산당이 오늘날까지 높이 치켜든 영광스러운 깃발임. 개혁·개방 이후 우리 당은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양면을 모두 경험하였는데 분명히 나타난 점은 민주가 없다면 사회주의도 없게 되고 따라서 사회주의 현대화도 없게 되므로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점이었음. 우리들은 정치체제의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음. 우리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지도급 간부직의 종신제를 폐지하여 국가 권력기관과 지도자들이 절차에 따라 교체되도록 하였음. 우리들은 끊임없이 인민들의 절차에 따른 정치 참여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인민들은 인민이 주인이라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실현하게 되었음.

우리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다수당이 협조하여 심도 있는 정치협상을 하고 민주적 감시제도와 정치 토의 과정에의 참여와 최대한 확대된 애국통일전선을 확고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함. 우리들은 인민들의 사정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며 광범위하게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질실하고 소중한 인민의 역량을 정책결정의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책 결정이 인민의 이익과 소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우리들은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그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위가 높게 되거나 낮아지게 되는 활력을 가지는 건전한 인사채용제도를 이룩함으로써 각 방면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적을 쌓고 업무를 빛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두어야함. 우리들은 중국식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당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및 법률과 해당 규약에 따라서 독립하여 책임을 지는 사법기관을 지지하며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우리들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제약과 감독에 관한 건전한 체계를 이룩하고 당과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켜야함. 실제로 우리들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튼튼한 생명력을 가졌으며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앞길은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법제를 건설하는 것이 인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아직 완전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인민민주권리 보장하고 인민의 창조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음. 중국식 사회주의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은 반드시 앞으로 더 나아가야함.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견지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영도이며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과 법의 지배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임.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합당한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인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근본적인 것과 당과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민이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과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당이 대세를 전체적으로 보고 각 방면의 핵심인사들과 협조하면서 당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치적인 정치역량의 수준을 높여 당의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민주제도를 튼튼하게 하며 민주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민주적 통로를 확장하며 인민들의 법에 따른 민주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관리, 민주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법치국가의 기본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전 사회에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널리 인식시키고 입법을 합리적으로 하고 사법을 공정하게 운영하며 전 인민이 법 절차를 지키고 국가의 각 업무를 법치화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당

과 국가의 더욱 번창, 발달하게 하여 장기간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더욱 완전한 제도보장이 되어야 함.”

20)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앞으로 하여야 할 일로서 우리들은 사회주의 문화발전에 대 변명을 가져오는 일을 계속하여 사회민주주의 선진문화를 공고하게 하여야 함. 사회주의 선진문화는 마르크스 정당의 사상적 정신적 상징임. 오늘날 문화가 날이 갈수록 종합국력으로서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들은 반드시 고도의 문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문화에 대한 자신을 가지며 민족의 소질을 높이고 고상한 인격을 형성하면서 더욱 노력하여 문화개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정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현대화, 세계적, 미래적, 민족적, 과학적 대중사회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여 사회주의 선진문화가 인민에게 깊이 스며들고 사회주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전 민족문화의 창조적 활력이 계속 솟아나고 사회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 지며 인민의 기본 문화 권익이 더욱 잘 보장되고 인민의 사상 도덕 소질과 과학 문화 소질이 전면적으로 높아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적 고향을 건설하여야 함.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달시키려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가 국민교육에 융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문명 건설과 당의 건설 전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 관한 최신 성과로 전 당을 무장시키고 인민을 교육시키며 다수의 간부와 군중이 당의 이론이 새로워진 성과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이상과 신념을 확고하게 하여야 함. 전체인민으로부터 애국주의를 핵심적 민족정신으로 힘써 끌어올리고 개혁의 창조적 정신을 핵심적 시대정신으로 만들며 민족 자존심, 자신감,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 각 민족 인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단결하고 힘써 노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사회주의의 영광과 치욕에 대한 가치관을 사회의 풍조로 유도하여 사회의 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의 품성과 덕을 형성하고 청소년의 도덕을 배양하여 사회전체가 정신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과

건강하고 문명된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문화체제개혁을 더욱 빠르게 이룩하고 공공문화 복무체계를 더욱 빨리 이룩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함. 중화문화가 세계로 향하도록 독려하고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와 상응하도록 하여 중화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함. 중화민족은 역사가 유구하며 넓고 깊은 중화문화를 이룩하였으므로 중화민족 또한 반드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기초 위에 새롭고 휘황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임.”

21)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우리들은 앞으로 힘써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회주의 화해사회(和谐社会) 건설을 지속적으로 힘써서 추진하여야 함.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会)를 건설한다는 웅대한 목표달성에 필연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것임. 우리들은 반드시 인민의 근본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전략이 높은 수준으로 성취된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사회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인민의 최대 관심사와 인민에게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힘써야하며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존하며 인민이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발전을 가져 오도록 하여 민생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을 완전히 보장하고 개선시키며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경제사회발전의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 발전,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거보장 등 각 분야의 사회사업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기본 공공복무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수입 분배를 조절하는 역량을 증대시키며 부를 공동으로 가지는 길을 마련하여 전체 인민들이 교육, 노동, 노년부양, 주거 등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함. 개혁, 발전, 안정을 모두 이룩하는 정확한 처리와 개혁, 발전, 안정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체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본 방침임. 발전이 매우 중요하나 안정도 중요한 임무임. 안정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이미 이루어 낸

일도 잃어버림. 이러한 이치는 전 당의 동지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여 두어야 하지만 전체인민들로 하여금 가슴 속 깊이 기억하도록 하여야 함. 오늘날 중국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사회변혁을 겪고 있음이 분명함.

이러한 변혁은 우리국민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활력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모순과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사회모순에 대처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역량임. 우리들은 사회발전 규율을 준수하고 모순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인민의 내부 모순과 기타 사회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며 끊임없이 모순을 일으키는 물질적 기초를 감소, 해소시키고 정신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과 조치를 개선하고 제도의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의 활력을 최대한 증강 활용하고 조화의 측면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조화를 저해하는 측면을 최대한 감소시켜야함.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당의 영도력, 정부의 책임, 사회의 협동과 공중이 참여하는 사회관리 형식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관리 과학화의 수준을 높여 인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확보하여야 함.”

22)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국가주권, 안전, 영토보존을 굳게 지켜주는 밑받침임. 우리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중국식의 군민융합식의 발전 방식을 모색하면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국과 강군을 함께 실현하여야 함.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단계에서 군대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방과 군대의 과학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더욱 빠르게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며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통솔이라는 기본원칙과 인민군대로서의 근본목표에 따라 오늘날의 혁명군인의 핵심가치관을 배양하고 군사투쟁의 준비를 개척하고 심화하며 정보화의 조건에 따라 군사훈련을 적극전개하고 국방과학 기술과 무기, 장비의 자주 개발능력을 높이고 현대 후방병참의 전면적 건설을 더욱 빠르게 하고 고도의 자질이 요구되는 새

로운 형의 군인을 하루 속히 배양하고 국방과 군인의 개혁을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정보화시대에 국부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능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화된 군사임무능력을 완성하도록 하여야함. 현대화 무장경찰병력을 더욱 빠르게 건설하여야 함. 전면적 국방교육을 심화하여하고 국방동원과 후방 예비 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군과 정치 군과 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야 함.

우리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마카오 인에 의한 마카오 통치’라는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시정, 경제발전, 민생개선, 홍콩, 마카오 지역과 내지와의 교류 합작, 나라 사랑과 홍콩 사랑을 일체시하고 나라사랑과 마카오 사랑을 일체시하여 단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홍콩 마카오의 장기번영과 안정을 보호, 지지함. 우리들은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변함없는 과제로 여기고 양안 교류합작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양안 각 계층의 왕래를 확대하며 ‘대만 독립’의 분열활동을 양안동포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공동으로 반대하고 억제함.

전 세계에 평화와 발전과 협력의 시대조류가 변하지 않고 있으나 세계평화와 발전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 발전의 기회를 함께 나누고 각종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영구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공동 번영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각국 인민들의 공동 희망임.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들은 항상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힘이 되었음. 인류를 위하여 응분의 공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일찍이 엄숙히 약속한 것이었음. 우리들은 장래에도 인류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업무를 이룩하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인류에 대하여 새롭고 더욱 큰 공헌을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중국의교정책의 근간은 세계평화를 지키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임. 우리들은 앞으로도 자주독립 평화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적 개

방전락을 추구할 것이며 평화공존 5개항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와의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요구와 공동이익을 보호하고 다자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정치경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임. 우리들은 앞으로도 대외 개방적 기본 국가정책을 확고하게 실행할 것이며 개방 경제체제를 완전하게 이룩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세계 각국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스스로의 평화발전을 통하여 각국공동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 중국공산당은 앞으로 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대내문제 상호불간섭원칙을 기초로 각국, 각 지구 정당 및 정치조직과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고 상호 국가통치와 정치경험을 배워서 국가관계발전의 추진을 도모할 것임.”

23) 施哲雄 主編(2003), p. 106

24)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우리당의 9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 성립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청년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였음. 우리당의 창당원이었던 리따짜오(李大鈞)는 청년에게 세계를 문명되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며 인류를 청년으로 만들라고 하였음. 우리당의 창시자들과 세대를 이어 오면서 중국공산당원들은 대부분 청년시대의 혈기왕성할 때 당에 참여하여 당과 인민을 위하여 평생 힘써 일할 것을 결심하였음. 우리 당에는 처음부터 활발하게 행동하고 숭고한 이상을 품고 열성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당이 90년간 험난한 고비를 거치면서도 활기차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었음. 청년은 조국의 미래이며 민족적 희망이자 우리당의 미래와 희망임. 당 전체가 청년들을 보살피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청년들의 성장을 격려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지하여야 함. 당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하며 인민들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함. 전국의 많은 청년들은 근대 이후 중국인민들과 중화민국이 열심히 투쟁하여 얻은 영광의 역사와 위대한 행적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위대한 조국을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의

위대한 중화민족을 영원히 사랑하며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지식을 넓히며 덕망과 의지를 단련하고 뜻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인생의 넓은 무대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생의 가치를 마음껏 구현하여 청춘을 당과 인민을 위하여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는 것에 현란한 광채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25) 본 내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필자 번역)

“90년 전 우리당은 겨우 수십 명의 구성원을 가졌으며 국가는 가난하고 낙후 되었으며 인민은 고통 속에 불안한 생활을 하였음.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이미 8천만 당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는 번영하고 인민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음. 90년 동안 우리당이 얻은 모든 성취는 인민과 함께 분투한 결과이니 인민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란 것을 우리들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함. 우리들은 당과 인민이 얻은 모든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자만하지 말아야하고 우리들은 결코 지난날에 이룩한 업적위에 안주하지 말아야함. 금세기 중간시점에서 우리당은 단결하여 인민을 영도하면서 두 가지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여야 함. 이것은 중국공산당 성립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10수 억 되는 중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높은 수준의 소강사회를 완전히 건설하는 것과 새로운 중국성립 100년이 되는 해에 부강한 민주문명, 조화로운 사회주의 문화국가를 완전히 건설하는 것임. 우리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은 무겁고 큼. 당의 전 동지들은 역사적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고 겸허하고 신중하며 교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영원히 간직하고 변혁에 용감하고 새로운 창조에 용감하며 경색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혼란에도 빠지지 않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단결하여 전국 각 민족의 인민을 영도하여 스스로 행복한 생활과 중화민족의 훌륭한 미래를 창조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함.”

26) Tony Saich, *op.cit.*, pp. 34-41, 中華人民共和國, pp. 123-162

27) Tony Saich, *op.cit.*, p. 47

28) *Ibid*, p. 109

29) 이 부분 *맹자* 원문은 아래와 같다

“.....使之主事而事治, 百姓安之, 是民受之也, 天與之, 人與之.....”

30) 모택동은 1959년 루싼(廬山)개최 공산당 중앙위에 서 당시 국방장관이던 펑더화이(彭德懷)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결국 펑더화이(彭德懷)를 숙청하였으며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은 천원(陳雲)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게 되었다. Tony Saich, *op.cit.*, p. 41, pp. 51-59, *中華人民共和國*, pp. 179-181

31) 중국공산당 지도자중 짜오즈양(趙紫陽), 후야오방(胡耀邦), 장쩌민(江澤民)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추천에 의하여 당 총서기가 되었으며 후진타오(胡錦濤)는 장쩌민(姜澤民) 총서기 시대에 이미 덩샤오핑(鄧小平)의 추천에 의하여 장쩌민(姜澤民) 다음의 총서기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 Tony Saich, *op.cit.*, pp. 91-101.

32) 이 부분 *맹자* 원문은 아래와 같다

“以力假仁者霸, .....以德行仁者王, ..... 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

33) Bertland Russel,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 touchstone Book(newyork, 1972), pp. 684-701  
Denis Huisman, Marie-Agnès Malfray, *Les pages les plus célèbres de la philosophie occidentale*, (Perrin) pp. 246-247

34) 이 점과 관련하여 Henry Kissinger는 최신작 “On China”에서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군사적 경쟁보다도 경제적 문화적 경쟁을 할 것이며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이상(ideals)을 전파하려고 애써온 반면 중국은 그들의 문화를 세계에 침투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전의 영국과 독일이 대립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은 모두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Henry Kissinger, *On China*, Penguin Group, 2011, pp. 514-530